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소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요약

- 자리아 포먼(Zaria Forman)이 바쉐론 콘스탄틴의 “One of Not Many”
탈런트 대열에 합류합니다.
- 미국의 열정적인 아티스트이자 탐험가, 변화하는 풍경을 포착한 목격자로서 그녀의 탐험
정신과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이 Overseas 컬렉션을 상징합니다.
- 캠페인 촬영에 이어 바쉐론 콘스탄틴을 위해 제작된 단 하나의 예술 작품, 펠스피아라,
아이슬란드(Fellsfjara, Iceland) no.3을 선보입니다.

미국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를 표현한 우아하고 장엄한 파스텔 작품을 통해 변화하는 풍경의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헌신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탐험가인 그녀는 바쉐론 콘스탄틴 “One of Not Many” 캠페인의 새로운 탈런트로서 코리 리차드(Cory Richards)와 함께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2018년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은 “One of not Many” 캠페인을 통해 메종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반영하는 개성 있는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특별한 오프 올로제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이 인정과 주목을 받는 브랜드가 되게 했습니다. 뮤지션 벤자민 클레멘타인(Benjamin Clementine), 디자이너 오라 이토(Ora Ito), 사진작가이자 탐험가인 코리 리차드(Cory Richards),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 이칭 인(Yiqing Yin)에 이어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이 메종의 탈런트로 합류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CEO 루이 펠라(Louis Ferla)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탈월함에 대한 탐구, 모험에 대한 애정, 열정과 혁신, 우아함과 전통, 모든 형태의 예술과 문화는 1755년 창립 이래로 메종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선구적이고 감각적이며 엄격한 관점은 자리아 포먼의 예술적인 접근 방식과 표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술이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을 예리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대중과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도 헌신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자리아 포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이 워치메이킹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각을 통해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매뉴팩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장인들, 그들의 열정과 소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그들의 수공예 작품에 놀랐습니다. 수작업으로 모델링을 하고, 창작과 전승의 과정에서 물질의 촉감과 감각을 즐기고, 시간에 개인의 흔적을 새기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작품에서 제가 사랑하고 구현하는 풍경은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것이 세계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소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요약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1982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자리아 포먼은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지구 중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15년 이상 지구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이미지와 기억을 대형 종이에 파스텔로 재현하고 이를 전 세계 박물관과 갤러리에 전시하여 변화하는 풍경을 기록했습니다. 자리아 포먼은 탐험하는 동안 변화하는 풍경을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그녀는 뉴욕의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렇게 수집한 이미지를 현장에서의 경험과 기억으로 조합하여 놀랍도록 아름다운 대규모의 작품을 구성합니다.



3



VACHERON CONSTANTIN

GENÈVE



Fellsfjara, Iceland n°3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소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요약

눈 덮인 빙하의 정교한 디테일, 물에 비친 얼음의 푸른빛, 거품이 이는 파도는 모두 작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손가락과 손바닥만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파스텔 피그먼트를 종이 위에 문질러서 구현하는 요소들입니다. 모든 의미에 있어서 사실적인 섬세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명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자리아 포먼의 작품은 전 세계의 박물관과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주요 전시회 중에는 아티스트의 일부로 참여한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과잉을 표현한 우울한 유원지인 뱅크시(Banksy)의 디스멀랜드(Dismaland)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극 대륙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러(National Geographic Explorer)의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했고, 린드블라드 원정대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듀어런스(National Geographic Endurance) 호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레졸루션(National Geographic Resolution ships)호를 통해 최초로 극지 예술 상설 전시를 담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헌신적인 아티스트인 자리아 포먼은 타협하지 않는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2016년부터 남극 대륙 및 그린란드, 캐나다 북극 상공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구의 얼음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진행된 항공 과학 임무인 NASA의 아이스브리지(IceBridge) 작전에 여러 차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자리아 포먼은 지구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을 묘사하는 장엄한 작품을 위해 두 극지방 상공을 여러 차례 비행하면서 특별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요약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소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요약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아티스트로서 저의 목표는 관객이 좀처럼 방문할 기회가 없는 고립된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객을 둘러싸고 그 장소와 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해 대규모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예술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잃게 될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누구든 무언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죠.

바쉐론 콘스탄틴은 특히 가치와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수성과 접근 방식에도 이러한 철학이 담겨 있나요?

물론입니다. 감성을 자극하고, 자연의 세계를 목격하고, 디테일과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가 존경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모습입니다. 저와 바쉐론 콘스탄틴은 주변 세계에 대한 열정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바쉐론 콘스탄틴과 제 작업에서 모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빙하가 형성되는 데 걸리는 엄청난 시간, 빙산의 측면에서 반짝이는 햇빛을 경험한 순간, 사진 속에 풍경을 담은 찰나의 순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디테일 속에서 경험한 순간을 다시 탐구하며 보내는 몇 주 또는 몇 달의 시간, 얼음이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관객들이 빙하의 잔해 속에 살아있는 역사의 프리즘을 통해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장인과 그들의 전문성, 위치메이킹 유산 및 문화와 함께하듯, 저도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작과 보존의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One of Not Many” 캠페인을 통해 선보이는 Overseas 컬렉션은 세계에 대한 탐구와 열린 마음을 나타냅니다. 촬영하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나요?

풍경속을 횡단할 때 끊임없는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그것 모두를 진정성을 다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얼음의 연약함은 Overseas 시계의 신뢰도와 대조를 이루면서도, 얼음과 시계 모두 시간과 정교함, 탁월함,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요약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이번 촬영을 계기로 펠스피아라, 아이슬란드(Fellsfjara, Iceland)라는 독특한 예술 작품의 새로운 시리즈를 위한 소재를 그렸으며, 그중 하나는 바세론 콘스탄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접근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아티스트로서 저의 목표는 관객에게 그들이 좀처럼 방문할 기회가 없는 외진 지역에 대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소에 대한 경외감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발적인 감정적 경험 이후 아티스트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에 대한 헌신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극지방의 매력에서 영감을 얻는 아티스트이며, 얼어붙은 만에서 분리되는 빙하와 취약한 해안지대의 침식된 해변을 그렸습니다. 특히 얼음이 녹는 디테일 자체와 빙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동하며, 녹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낍니다. 2021년 9월에 방문했던 아이슬란드 펠스피아라의 얼음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그곳에서 얼음을 통해 본 현상에 매료되었습니다. 최근에 분리되어 압축된 빙하 얼음 덩어리가 검은 모래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해안선에 부딪치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얼음 덩어리를 통해 보았을 때, 하얀 바다 거품은 얼음에 의해 왜곡되어 빛이 추는 춤과도 같았습니다. 빛은 얼음층을 통과하여, 아마 고대에 생성되어 얼음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내부에 갇혀있던 기포 주위로 이동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거품들이 터지는 소리를 녹음했는데, 아이슬란드 펠스피아라에서 이 친숙하고 기분 좋은 소리가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바세론 콘스탄틴을 위한 드로잉을 포함한 새로운 작품은 이러한 현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이전 작업에서는 시도한 적 없었던 얼음의 질감과 표면을 확대하여 표현합니다. 이번 작품은 빙하가 녹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요약



소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아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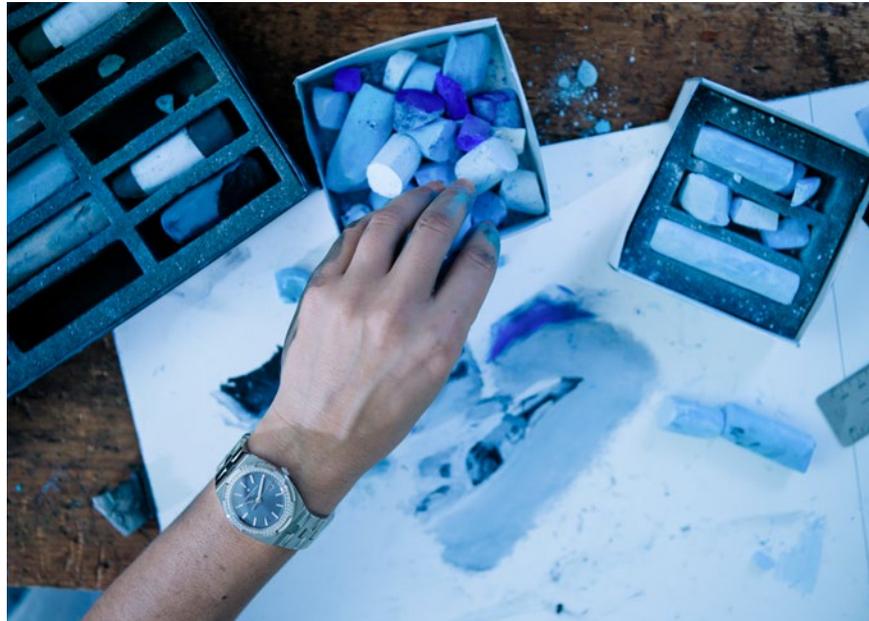
자리아 포먼과의 인터뷰

요약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ONE OF NOT MANY”에 합류하고 OVERSEAS 컬렉션을 대표합니다

요약

미국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이 벤자민 클레멘타인, 오라 이토, 코리 리차드, 이칭 인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의 재능 있는 탠런트 그룹 “One of Not Many”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슬란드에서 광고 캠페인을 제작한 Overseas 컬렉션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자리아 포먼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미지와 기억을 모아 펠스피야라, 아이슬란드(Fellsfjara, Iceland)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드로잉, 영상 작업, 조각품을 위한 자료를 구성했으며, 이중 no.3은 바쉐론 콘스탄틴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레이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